육아정책 Brief

통권 제45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6년 3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3 March

‘맡기는’ 보육에서 ‘함께하는’ 보육으로

Ⅰ. 부모참여 확대의 배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2015년 보육의 화두는 단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조성이었고,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린이집은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으로 명명함.[1)]
  - ▶ ‘열린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부모 및 가족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모가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부모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고려하는 국제 추세와 부합함.[2)]

영유아의 기관이용이 보편화된 현 상황에서 기관과 부모의 협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게 됨.

- 특히 ‘무상보육·교육 확대’라는 정책적 지원으로 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영유아의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칫 부모역할과 책임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관과 부모의 협력이 가져올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맡기고’, ‘맡아 주는’ 보육을 넘어서서 부모의 참여가 확대된 ‘더불어’, ‘함께 하는’ 보육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자녀양육의 주체는 부모이며, 부모가 행복하게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몫이라는 대전제를 견지(堅持)하면서, 보육의 중심에는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커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음에 주목하고 ‘맡기고’, ‘맡아 주는’[3)] 보육을 넘어서서 부모의 참여가 확대된 ‘더불어’, ‘함께 하는’ 보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Ⅱ. 부모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보건복지부는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 가이드라인 배포,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시행함.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부모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반을 마련함.
  - ▶ 2015년 법 개정에 보호자가 참관을 희망하는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락하는 제도 도입(제25조의3 신설)[4)]을 명시함.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3-5세 누리과정」의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권미경·윤재석·조혜주, 2015)의 조사결과를 재분석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4. 27). ‘부모에게 활짝 열려 있는 어린이집 만든다!’
2) OECD(2012). Starting Strong Ⅲ. p.12.
3) ‘맡기다’는 ‘물건을 맡아 보관하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맡다’의 사동사로 ‘맡기는 보육’의 의미 안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책임을 담당 지운다는 부모의 책임 전가와 맡겨지는 아이들의 수동적 입장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음.
4) 영유아보육법[시행2015.9.19] [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시행을 독려하고,[5]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 어린이집 개방, 부모교육 실시, 부모 교육자료 제공, 가족 참여 프로그램 실시,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 해결 지원 및 전문기관 정보 보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파악 노력 등을 포함함.[6]

- 이외에도 함께하는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통로로 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도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확대를 위한 다면적인 노력들이 보도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부모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됨. 지자체 마다 사용하는 명칭은 다르나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지향함이 공통점임.

▶ 서울특별시의 '열린어린이집의 날' 지정, 인천광역시 '공공형어린이집 가족참여의 날' 운영, 부천시 '열린보육체험단' 운영, 광주광역시 '참 좋은 어린이집 개방의 날' 운영,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개방의 날' 등이 그 사례임.

Ⅲ. 어린이집 부모참여 현황

열 명 중 일곱 명의 부모는 거의 매일 자녀의 어린이집을 방문하며, 어린이집 행사나 참여 요구 시 주 참석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로 편중됨.

- 어린이집은 부모와 함께 하는 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7]

▶ 2015년 8월,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의 등하원 동반을 포함해 부모의 66.8%가 어린이집을 매일 방문하여 방문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1> 부모의 어린이집 방문 빈도

단위: %(명)

거의 매일 (등하원 포함)	일주일 2~3회 정도	일주일 1회 정도	한 달 2~3회 정도	한 달 1회 정도	6개월 3~4회 정도	6개월 1~2회 정도	연간 1회 정도	거의 가지 않음	계
66.8	5.5	6.5	7.0	6.0	3.1	3.6	0.2	1.2	100.0 (416)

▶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나 부모 또는 보호자 참여 요구 시 주로 참석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임을 확인함. 부모의 방문빈도가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그 역할이 주로 어머니에 편중되고 있음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임. 다만 맞벌이의 경우 아버지 참여 비율이 다소 증가함.

<표 2> 어린이집 행사나 부모 참여 요구 시 주 참석자

단위: %(명)

	어머니	아버지	조모·외조모	기타	계(수)
전체	93.1	4.3	2.0	0.5	100(416)
맞벌이	89.4	7.0	3.6	0.0	100(250)
외벌이	97.1	1.7	0.3	0.9	100(166)

어린이집 부모참여 시 부모의 주 관심사는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과 자녀에 대한 이해로 수렴됨.

▶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 참여 영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교사상담, 공개수업 등) 68.8%,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학부모회, 운영위원회) 16.8%, 부모교육 프로그램 11.1%, 자원봉사(일일 교사, 교구 제작 보조 등) 3.4%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의 관심은 어린이집에서의 자녀의 생활에 모아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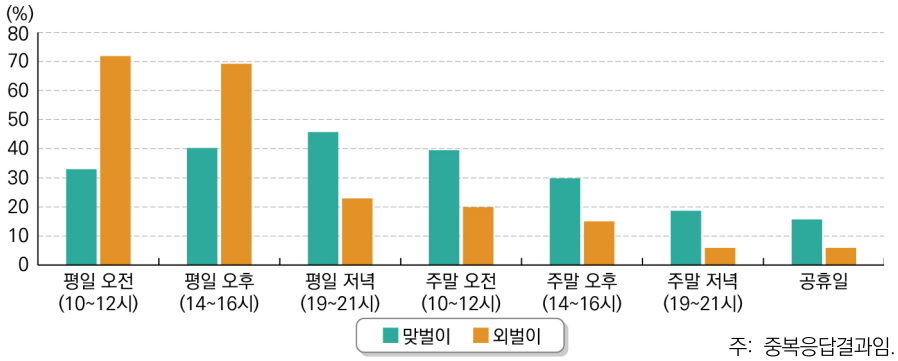
5)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p. 120.
6)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p.369.
7)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 『「3-5세 누리과정」의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권미경·윤재석·조혜주, 2015) 연구 결과를 재분석한 것임.

▶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 때문'(37.4%), '가정과 기관에서 자녀의 발달을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어서'(22.8%),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내용을 알 수 있어서'(16.3%), '부모의 참여를 자녀가 좋아해서'(9.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선호 시간은 주말보다 평일이며, 맞벌이 부모의 참여가능 시간대를 고려한 참여활동 기획이 필요함.

▶ 자녀의 어린이집에 방문 또는 참여 가능한 시간대를 모두 답하도록 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선호 시간대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나, 두 집단 모두에서 주말보다는 평일 선호 현상이 두드러짐.

▶ 외벌이 가정의 경우, 평일 오전(10~12시)과 평일 오후(14~16시)에의 선호가 분명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평일 저녁(19~21시)을 가장 선호하며 평일 오후(14~16시), 주말 오전(10~12시)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간 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함.



[그림 1] 어린이집 방문 또는 참여 가능한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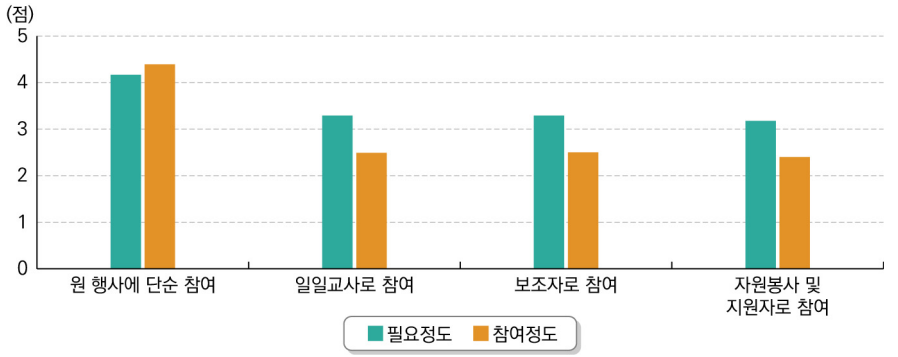
▶ 어린이집 부모참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활동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48.6%),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됨'(13%), '자녀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12%),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11.1%)의 순으로 높게 평가함.

부모들은 부모참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나 참여는 그에 미치지 못하며, 준비된 상황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을 선호함.

함께하는 보육을 위해서는 능동적 참여자로의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확장과 교사와 부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가장 수동적 참여 수준인 행사에 단순 참여하는 수준부터 일일교사로 보육활동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구분하여 그 필요성과 참여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 참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어린이집 또는 교사가 준비한 원행사에 단순 참여하는, 부담 없고 소극적 활동에 대한 부모의 필요도와 참여도가 다른 유형보다 높음이 특징적임. 일일교사나 보조자, 자원봉사 등이 부모들이 참여하기에(특히 맞벌이) 부담스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건에 맞게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 가능한 부모참여 유형의 안내와 함께 프로그램의 기획, 우수 사례의 공유가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2]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 수준별 필요 정도와 참여 정도(5점 척도)

Ⅳ. 제언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지니는 함께하는 보육의 강점에 주목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모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교사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교육과 보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제기되나, 부모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의 개방성이 증진되고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이 확장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해야 함.
- 부모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열린어린이집'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함께하는 보육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역량강화 교육 기회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다면적인 준비와 더불어 함께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부모와 교사, 부모와 부모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 요소임을 재확인함.
- 다음과 같이 부모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 참여해 본 경험이 다음 참여를 동기화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학기 초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음.
  - ▶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공간의 개방 뿐 아니라 교사-부모, 부모-부모 사이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여 소통의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함.
  - ▶ 부모참여 활동이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보육과정 운용에 초점을 둔 부모 일일교사, 자원봉사 참여 등 정례적인 보육활동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행사 위주의 참여활동은 교사의 업무를 증가시키고, 유아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님을 유념해야 함.
  - ▶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맞벌이 부모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예를 들어 맞벌이 부모가 참여 가능한 시간을 배려하거나 참여 내용을 홍보하여 미리 계획하여 부모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됨.

권미경 부연구위원 mkkwon@kicce.re.kr